

광주 효령동 주민과 약속 지킨 ‘친절한 정숙씨’

김정숙 여사 복지타운 방문 “호남이 마음줘 당선” 감사인사 윤시장·시민 1000여명 환영 “어르신들에 효도하는 정부될 것”

지난 대선 기간 ‘호남 특사’ 역할을 톡톡히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30일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를 방문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에 있는 효령노인복지타운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에게 인사하고 이번 대선에서 문 후보에게 광주 지역 유권자들이 과반의 지지를 보내준 데 감사사를 표했다.

이날 효령노인복지타운 입구에는 ‘참 잘~합니다. 대통령도 김 여사도’ 문구의 플래카드가 내걸렸고, 윤장현 광주지사를 비롯한 시민 1000여 명이 몰려들어 김 여사를 환영했다.

김 여사는 입구에서 구내식당까지 이어진 어르신들과 일일히 악수를 나누고 안부를 묻은 뒤 구내식당에서 광주 방문 소감을 밝혔다.

김 여사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각시입니다”라고 소개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서 많은 성원 끝에 대통령이 되셨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주시민이 많은 질책을 해주셨기에 이곳을 찾은 저희도 노력하고 그 뜻이 무엇일까 되새겼다”면서 “저희에게 마음을 나누셨기에 (남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어 “지난해 추석 때 광주에 내려왔을 때 가졌던 마음을 5년 동안 꼭 간직하면서 대통령 옆을 지키며 국민들 마음의 뜻을 전파하려고 한다”면서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매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오른쪽)가 30일 광주 북구 효령동에 있는 효령노인복지타운을 방문, 어르신들과 포옹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약속을 지키는 문재인 정부 효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광주·전남 지역을 돌며 문 대통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대선 기간 ‘호남 특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곳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는 데 공을 들인 바 있다. 올해 91세인 김동홍 옹은 김 여사를 꼭 끌어안고 “반머리 김정숙 님께 효도하

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김 여사는 “대한민국을 나의 가족처럼 여기면서 정치를 해야겠다”면서 “문 대통령은 어르신에게 효도하는 정부, 초심을 갖고 약속을 지키는 정부, 그런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윤장현 광주지사는 “그동안 김 여사께서 ‘호남의 머느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대한민국 머느리’로서 잘 하시리라 믿고 광주도 문 대통령의 생각을 잘 지켜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의원 겸직 논란’ 재점화 되나

민주 장관후보자 4명 상임위원장·간사 사보임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30일 일제히 장관 후보자로 추천되면서, 이들의 입각시 발생할 원내 반자리를 어떻게 메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장관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김부겸(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의원 등 4명이다.

현행 국회법 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입각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다.

하지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역할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상임위원회 활동 문제가 걸린다. 김부겸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종환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특히 김영춘 의원은 위원장으로, 도 의원은 간사로 각각 활동 중이다. 김현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으나 전날 본회의에서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이 새로 선출되면서 사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인선을 계기로 정치권의 해묵은 이슈인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논쟁이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앞서 2012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국회 쇄신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에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겸직 금지 대상에 국무위원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음을 의식한 조치였다. 하지만 당내 의견이 부딪히면서 방안은 백지화됐다. <연합뉴스>

이낙연 협조하지만...날 세운 국민의당

“강경화·김상조 엄하게 볼 것”...정치개혁팀장에 천정배

국민의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결정에는 협조하기로 했지만 이후 장관직 청문회에서는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호남 민심을 고려해 전남 출신의 이 후보자를 반대하진 못했지만,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선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는 게 뒤에 있을 강경화·김상조 후보자의 위

장전입 의혹에 면죄부 주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엄하게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개혁특위와 정치발전특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내에 정치개혁팀을 설치하고, 천정배 전 대표를 팀장으로 임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침침산중’ 청문회 정국...몸 낮춘 與

우원식·박홍근 “어디든 찾아가 설득”...대응책 마련도 분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최대한 몸을 낮추며 야당 설득에 주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 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데다 앞으로 새 정부 내 각 인선을 마치기까지 침침산중의 인사청문회 정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경화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 김상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우선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준안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야당 설득에 발 벗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도 하루 종일 야당 대표들과 의원들이 계산 곳 어디든 찾아가 설득하고 토론을 통해 진정한 협치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기준을 제시했다. 야당 요구를 100%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

리면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시한인 31일을 넘기면 협치는 시작 전부터 난파하게 돼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해야 한다.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비롯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야당을 설득해 인준을 원만히 하겠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특히 ‘인준 거부’ 당론을 정한 자유한국당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3개 야당이 인준 안 처리절차에 협조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인준 투표에 불참할 경우 ‘협치’를 강조해온 새 정부 기조와 달리 정권 초기부터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합의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한국

당도 그동안 협치에 흔쾌히 참여했고, 국정운영에 협조할 의사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의하고 설득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합의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제는 이 후보자 인준이 무사히 통과되더라도 뒤이어 강경화·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그간 위장전입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된 터여서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새 공직자 인준 기준 마련을 고리로 인사청문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나아가 과거 정권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송곳 검증’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 비판으로 돌아온 점을 재차 인정하며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황 목주’ 선물 받은 文대통령

교황청 특사단 활동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로마 교황청에 특사로 다녀온 김희중 대주교 등을 접견하고 특사단 활동 내용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티칸에 대통령 취임 특사를 보낸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교황 성하께서 두 번이나 만나주시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김희중 대주교는 “교황 성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해 아주 관심과 애정이 많으시고 문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새 정부가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교황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김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축성(祝聖)한 목주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교황님을 뵈고 역대 대통령님의 안부도 전해 드렸는데 이렇게 별도로 챙겨 주신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개를 주신 것은 저희 부부에게 주신 것 같다”며 교황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희중 대주교와 함께 교황청을 다녀온 성명 전 교황청 대사는 “교황청 국무원장께서는 대통령님의 취임식이 언제인지 물어보고 취임식을 하면 특사를 보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 ▶총 매입금액 : 11억원
- ▶1인 2,000만원 이상
-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